

한라시론



오 윤 정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센터장

빈곤의 덫(poverty trap)은 가난한 상태가 스스로를 유지·강화하는 역학 구조로, 빈곤을 탈출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조·제도적 요인 때문에 자생적으로 가난을 탈출하지 못하고 빈곤의 굴레에 계속 갇혀 있게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여러 나라에서 이와 같은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법령 및 제도를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는 1990년대 말 IMF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실업과 양극화 문제로 인해 기존의 시혜적 생활보호제도의 한계가 나타나면서

자활정책, 지역중심 재설계가 필요한 때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2000년 10월 시행)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조건부 수급자’로 지정하고, 자활사업에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면서 자활정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과거 생활보호법이 근로능력자는 제외된 근로무능력자에 대한 생계보호 중심이었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및 제15조(자활급여)를 명문화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근로연계형 복지(workfare) 체계로 전환한 것이다. 이후 우리나라 자활정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장기적인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탈수급을 통한 빈곤완화 효과는 단기적인 경우가 많고, 최근 들어 자활참여자의 전반적인 근로역량 하락과 경제침체 영향으

로 인해 자활성공률도 2021년 26.4%에서 2024년 18.5%로 하락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이재명정부는 자활사업 참여구조 및 참여자 역량 변화, 자활성공률 저하 등 정책 여건 변화를 고려해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마련’을 국정과제(77-1)로 설정했다. 2026년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을 위한 1차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전국 61개 지역자활센터가 참여하고 있다. 이후 현장 의견 수렴 및 2차 시범사업(‘27년 100개소)을 거쳐 2028년에는 전국 250개 지역자활센터가 참여하는 본 사업으로 개편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맞춤형 자활사업은 자활참여자의 역량 및 자활의지 등 역량을 진단하고, 자활경로를 설정해 자립도전 단계(창업도전형·취업도전형)와 자활준비 단계(사회서비스형·근로

준비형)로 구분하고, 성과목표 또한 구분(자활성공률·사회적 자활)해 운영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2025년 12월 말 기준 1개 광역 자활센터와 4개 지역자활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제주형 자활사업 모델 개발 및 활성화방안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이번엔 정부가 추진하는 맞춤형 지역자활체계 개편에 맞춰 2027년부터는 제주지역에서도 적극적으로 정부의 시범사업 참여 및 제주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자활사업 발굴 및 정책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활(自活)의 한자어에 담긴 뜻처럼 저소득층이 자기 힘으로 살아갈 힘을 기를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자활정책을 발굴하고, 자활참여자의 자립과 도전으로 이어져 빈곤의 덫(poverty trap)에 빠지지 않는 제주가 되기를 희망한다.

사설

고의숙 교육감의 선택적 대응 안된다

지난 6월 3일 열린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당선된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은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한 제주지역 모 중학교 교사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고 교육감은 지난 3월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교사가 보호받고, 아이들이 안전하며, 학부모가 신뢰하는 제주교육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했다. 고 교육감은 “악성 민원을 교사가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구조, 교사를 보호하지 못하는 행정 시스템,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교육행정이 만들어 낸 구조적 비극”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학교가 아이를 보호하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 초등학생이 지난해 11월 친구들의 괴롭힘 등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교내 위기

관리위원회를 소집하고도 자료가 없었고 학생자살(시도)사안 보고서도 없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피해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분리 조치도 미흡했고 극단적 선택 시도 사건을 목격한 학생들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도 없어 교육당국의 조치가 적절했는지도 의문이다. 교육당국에서 12일 대응과정의 문제점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고의숙 교육감은 물론 교육당국은 이번 사안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도 없다. 교원 관련 단체의 성명조차 없다. ‘교권보호’와 ‘학교 안전’으로 상징되는 ‘참교육’은 선생님에게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에게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학교 폭력으로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버리는 일은 절대 발생해선 안 된다. 교육당국의 철저한 대책을 촉구한다.

국제행사 유치 잇단 고배, 부실 전략이 문제

제주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마이스(MICE) 산업의 최적지다. 굵직한 국제회의 경험을 비롯한 풍부한 문화·관광자원과 보안·경호의 안전성은 제주가 내세울 수 있는 강점이자 매력이다. 이런 연유로 제주는 6회의 정상회담과 12회의 장관급 이상 국제회의 등을 개최하며 마이스 산업 도시로서 명성을 떨쳐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국제행사 유치 경쟁에서 매년 고배를 마시면서 명성이 퇴색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윤석열 정부 당시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유치에 사활을 걸었으나 결국 경주에 밀렸다. 민간 합동의 유치위원회까지 꾸려 전도민적으로 열전을 펼쳤지만 무위로 끝났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국제행사 유치에서 연달아 고배를 마시고 있다. 제주도는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

유치에 도전했지만 지난 10월 개최지는 경쟁 도시인 부산으로 낙점됐다. 이보다 앞서 지난 7월 부산에서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역시 지난해 제주도가 유치에 공을 들였지만 부산에 밀리면서 기회를 놓쳤다. 세계자연유산 등재 등 유네스코 3관왕의 지위와 명예를 갖고 있는 제주가 세계유산이 없는 부산에 밀렸다는 것은 선정의 공정성을 떠나 뼈아픈 자성을 해야 할 대목이다. 정부는 주요 국제 행사 개최지 선정에 위해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개최지를 결정하기 위한 조치다. 제주도는 유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냉철하게 분석하고 새롭게 유치 전략을 짜야한다. 경쟁도시를 압도할 수 있는 제주만의 특장을 어필할 수 있는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열린마당

벌 쏘임 사고, 여름철 안전의 사각지대

김 경 윤  
화북여성의용소방대 부대장

도 매년 2000건 이상 이어지고 있다. 벌 쏘임을 예방하려면 향수나 화장품 등 강한 향이 나는 제품 사용을 자제하고, 밝은 계열의 긴소매와 긴바지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벌집이나 벌이 자주 보이는 장소에는 접근하지 않아야 하며, 벌을 발견했을 때는 손을 휘젓거나 소리를 지르지 말고 몸을 낮춘 뒤 천천히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 벌에 쏘였다면 벌집이 남아 있을 경우 카드 등으로 밀어 제거한 후 깨끗한 물로 씻고 냉찜질을 해야 한다. 호흡곤란이나 어지럼증, 얼굴·목의 부종, 전신 두드러기 등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여름철 벌 쏘임 사고는 안전수칙만 지켜도 예방할 수 있다. 야외활동 전 주변을 살피고 벌을 자극하지 않는 작은 실천이 나와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예방이다.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기온이 상승하면서 벌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7월부터 9월까지의 벌 쏘임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야외활동과 벌초, 등산, 농작업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벌 쏘임 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여름철 벌 쏘임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5년간 벌 쏘임 사고 인원의 65.4%가 7월부터 9월 사이 발생했으며, 8월이 28.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벌집 제거 출동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어르신 폭염 안전’ 제주 청년들이 챙긴다

청년방재단 경로당 폭염 지원

○…폭염 장기화에 대응해 제주도는 제주청년자율방재단과 함께 제주시 지역 경로당 무더위쉼터를 찾아 어르신들의 건강을 직접 살피는 현장 지원 활동을 전개. 제주청년자율방재단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연동 귀아랑경로당, 삼양동 도련2동경로당, 조천읍 합덕47경로당 등 3개소를 찾아 자신의 전공 지식과 역량을 재난 안전 현장에 직접 적용해 폭염 취약계층을 지원. 물리치료과는 안마 마사지와 탄력 세라밴드를 활용한 근위축 예방 및 혈액순환 운동을 진행하고 간호학과는 쿼즈를 활용한 온열질환 예방 수칙 및 행동 요령 교육을, 사회복지과는 ‘제주 재난 안전문자’ 카카오톡 이용 안내·설치 지원과 말벗 활동 등을 진행. 오소범기자

제주시 “풋굴 적기 출하” 당부

○…제주시가 본격적인 풋굴 출하시기(8.1~9.15)를 맞아 해당 농가의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와 적기 출하를 당부. 이와 함께 시는 풋굴의 안전한 유통과 출하 활성화를 위해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풋굴 전용 포장 상자 구입비를 비롯해 풋굴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 풋굴 도와 직거래 택배비, 도외 가공업체 납품 해상물류비 등 4개 사업을 지원. 이동의 제주시 감귤유통과장은 “제주 풋굴의 안전한 생산과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농약 안전사용기준과 출하기간을 철저히 준수해 출하해 주길 바란다”며 “출하기간 외 출하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에 철저히 하겠다”고 언급. 백탐기기자

부 Rotary 고

양유연 아버지 운봉 양영화(제주중앙로타리클럽)께서 서기 2026년 8월 12일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6년 8월 13일(목요일) 오전 9시 30분~

▶발인일시: 2026년 8월 14일(금요일) 오전 10시

▶발인장소: 동광성당(태성로2길 10)

▶장 지: 황사평(천주교)

딸 양 유 연

아 들 양 지 범

며느리 김 은 연

※ 마음 보내실 곳 : 양유연(농협 302-1258-521571) 양지범(농협 302-0193-042011)

국제로타리 3662지구 제주중앙로타리클럽 회원 일동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 레 아

방수전문건설업  
석 주 개 발

☎ 782-3644  
010-4690-3636

제주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율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모지 후손 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 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을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 이내 가능합니다.

○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 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 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모지전문 제 주 토 박 이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 연구소  
신소장 ☎ 010-7305-7819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가족묘지·문중묘지  
허가 대행

별초대행·각종제초작업

묘지관리·묘지보수

방묘·산담·잔디작업

평장·이장·화장·무연고 전문

가족묘지 & 산소에 새, 석새, 잡풀 죽는 약 보유중

장례지도사 강 봉 호  
010-5254-6661  
「진주강씨 제주도종회 이사  
사)한국역술인협회 제주지부 이사  
관음사 영락원 관리이사」

하나 장 의 사  
616-08-85402